

지역 매 아리

정읍시 연지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앞장'

주민 자치 조직 최일선에서 따뜻한 봉사 활동을 펼쳐가고 있어 화제다.

정읍의 관문인 정읍역과 터미널이 있는 연지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한상관) 회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 이들은 회원끼리, 혹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나눔 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내장산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는 최근에는 정읍역 광장에서 정읍을 찾은 단풍 나들이객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 정경과 훈훈한 정읍의 이미지를 높이기도 했다.

한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아침 7시부터 정읍역을 찾아 따뜻하고 화사한 미소로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커피와 생화차 등을 대접했다. 이들은 "정읍을 찾은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차로 여행의 피로를 푸는 걸 보니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매년 단풍철에는 차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는 이 외에도 최근 정읍천에서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교육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 점검 나서

정읍시가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불법 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 주차 구역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위반 건수 증가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 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장애인이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반조 및 표지 불법 대어 ▲불건적지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적발되면 불법 주정차는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면담... 현안사업 적극 지원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는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관광형 부창대교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안군은 이날 권 군수가 김 장관에게 부안군 일대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서해안 지역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해안권 주요 현안 사업인 관광형 부창대교 건설, 격포~위도 연육교 건설, 서해안 철도 건설, 국도 23호선 선형 변경 등 4건의 도로 교통시설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안군수는 관광형 부창대교

건설을 통해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부산~과주간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부안 변산과 고창 해리를 관광형 대교로 연결해 유유히 천만시대 대중국 교류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도 23호선의 경우 상사구간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줄포구간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으로 선형 변경을 건의했으며 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격포~위도 연육교 건설은 여객선 결항율이 연간 150일에 달하고 영광

항빛원전 운배수 피해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해의 관광자원인 위도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식도~위도간 지방도 703호선과 위도~격포간을 국도 30호선으로 승격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권 군수는 서해안 철도 건설과 관련해 환황해권 시대 서해안(새만금) 지역이 중국산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서해안 철도망 단절 구간인 새만금~목포 구간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위생·맛·친절' 모두 잡은 신규 정읍 맛집 지정증 전달

정읍시는 지난 8일 정읍 맛집 추가 업소 4개소에 대해 맛집 지정증을 수여했다.

이날 정읍 맛집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가로동식당, 레스토랑 마리서사, 이상촌 해물갈국수, 춘향골 등 4개 음식점이다.

이번에 선정된 맛집들은 전문가에 의한 현장평가와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 혜택을 받는다.

또, 음식문화 활성화 위탁 교육을 통해 선진 우수업소 벤치마킹과 환경개선, 상차림 촬영, 위생 물품 등의 지원책이 뒤따른다.

시는 매년 정읍 맛집 등을 대상으로 영입주 마인드향상 교육, 서비스 개선 등 이론교육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위생적이고 신뢰도 높은 맛집 지정을 통해 앞으로도 선진적인 음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읍 맛집으로 지정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읍

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정읍 맛집을 선정, 현재까지 정읍 맛집 20개소를 지정했다.

지정 업소는 금거북, 갈비박스, 백학정, 명성쌈밥, 일터, 국화회관, 씨아전부, 순정축첩한우명품골, 단풍미인한우, 지양식당, 보안식당, 조선별관, 너른마당, 산골냉면, 신가네정음국밥, 다래원, 가로동식당, 마리서사, 이상촌해물갈국수, 춘향골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들 모여라”

고창문화의전당서 16일 육아 공감 토크콘서트 '투맘쇼' 열려

육아맘을 위한 공감·힐링 토크콘서트 '투맘쇼'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창군과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가 '퇴근이 없는' 육아로 인해 지친 엄마·아빠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연에는 실제 육아를 하고 있는 개그우먼 정경미와 김경아가 출연해 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공감대를 높인다.

힘든 육아생활을 푼 터놓고 얘기하는 '속풀이 토크'를 비롯해 '폭풍공

감 콧드 퍼레이드'와 자녀를 둔 엄마들만 풀 수 있는 '관객참여 퀴즈쇼'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참여대상은 영유아 양육자와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이며 자녀 동반입장도 가능하다. 입장권은 오는 15일까지 센터에서 직접 발부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투맘쇼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했다"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063-564-0862)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부안군이 지난 8일 부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잼버리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부안군, 잼버리지원위원회 개최... 주요 현안 논의

부안군은 지난 8일 부안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오세웅 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잼버리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잼버리운영팀장의 2019년 사업성과 및 2020년 사업계획 보고로 시작해 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한 스카우트 자변확대 방안, 잼버리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 및 SOC 개발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잼버리가 부안에서 개최되는 만큼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군민모두 한마음을 한뜻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 회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오세웅 위원장은 "잼버리지원위원회 역할은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앞으로 만 3년 앞으로 다가온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위원들께서 잼버리 불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스카우트 활동에 함께 앞장서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연길 새만금잼버리과장은 "부안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간의 준비로 부안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제25회 부안 세계잼버리는 오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70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청소년 행사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 값 받고, 즐거움 찾는 고창농업

고창군, 농업인의날 기념식 성료

고창군과 고창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유양중)가 11일 오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제2회 고창군 농업인의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오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및 고창군의회 의원, 김만기 전북도의회 도의원, 기관사회 단체장, 지역 농업인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 비가 내려 쌀쌀한 날씨에도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는 많은 주민이 행사장을 찾아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생명문과 살려 다시 치우는 한반도 첫수와 건설에 기여한 유공 농업인에 대한 군수 표창과 공로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유양중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농민들의 한 해 동안 팍과 노력이 수확의 기쁨을 통해 잊어버리듯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리는 소중한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축사에서 "농생명 식품산업을 반드시 살려 한 반도 첫 수 고창시대를 만들고 농업인의 팍과 열정이 보답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함께 꿈을 만들어가자"고 격려했다.

부대행사로는 멜론, 고구마, 땅콩, 고창쌀 막걸리 시식회와 주요작목 및 가공품 전시 등이 마련돼 대체롭고 특색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고창군은 군정 최우선의 가치를 '농생명 식품산업 활성화'에 두고, 전국 최초 시농대계 개최, 토종종자 보존·육성 조례제정, 최근에는 전라북도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을 실현시켰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외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빛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1합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